

<b>Publisher</b>	Korea Daily
<b>Title</b>	PUBLIC PARKING LOT, WILL CHANGE TO THIS
<b>Date</b>	Wednesday, 3/5/14
<b>Content</b>	A development project named "Flushing Commons" that will redevelop a prominent Flushing public parking lot into a large-scale mixed-u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complex will commence construction this month. With a total construction cost of \$850 million, it will include 600 condo apartments and 500,000 square feet of office, retail, outdoor plaza, and etcetera. The image presented is a new rendering that was released on the 4 <sup>th</sup> . <Related article A-2 page> [Perkins Eastman website capture]



인화기획  
인화인원  
201-894-5451  
Englewood Cliffs, NJ



대성기획  
다성인원  
888-967-1472  
201-894-5451

#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



한국행 & 국제선  
비즈니스석 & 일등석  
최대 50% 할인  
646-494-4477  
www.flightprice.com



해운이사 국제택배 차량운송  
CJ 대한통운  
www.keusa.com 866-588-1255

연락처: (718) 361-7700  
New York JoongAng Ilbo 1부 75¢ 제15063호 Wednesday, March 5, 2014 A

# 오바마 '중산층 구하기' 나섰다

3조9010억불 2014~2015년 예산안 발표

근로소득·부양자녀 세액공제 등 확대  
대학 학비 감세 혜택도 영구화 추진  
담뱃세 올려 무상 유아교육 전면 시행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2014~2015회계연도 연방정부 행정예산안을 4일 의회에 제출했다.

현 회계연도보다 2500억 달러가량 늘어난 3조901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는 지난 1월 28일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소득불균형 완화, 인프라 건설 투자, (직업)교육 투자, 중산층 감세, 부유층 증세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 <본지 1월 29일자 A-1면>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양육비 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 등을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른 세수 손실은 그 동안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제공됐던 세제 혜택을 폐지·축소함으로써 보충할 계획이다.

우선 무자녀 근로자에 대한 EITC 범위를 확대해 자녀가 없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무자녀 근로자의 EITC 한도를 현재의 503달러에서 1005달러로 높이고 소득 상한선도 현재 1만 4790달러에서 1만8070달러로 올린 다.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에는 2만



회이다.

또 부양자녀·부양가족 세액공제도 확대하는 데 특히 5세 미만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내년 소득세 신청에서 평균 600달러 이상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우선 고등교육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를 영구화해 1150만 가정이 평균 1100달러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연구개발,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10년간 1350억 달러를 추가로 할당했으며, 갑당 1.01달러인 연방 담뱃세를 94센트 올려 10년간 780억 달러를 마련해 모든 4세 어린이를 위한 유아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도 포함됐다. 연방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바뀐다 플러싱 공영주차장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플러싱커먼스 프로젝트'가 이달 중 착공된다. 총 공사비 8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600가구의 아파트와 50만 스퀘어피트의 사무·상용 공간, 야외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공개된 새 조감도. <관계기사A-2면> [퍼킨스이스트만 웹사이트 캡처]

## 삼성 등 주요 기업 대거 참가

14일 글로벌 채용 박람회  
맨해튼 펜실베이니아 호텔  
미 업체·정부기관 부스도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한인 인재 채용을 위한 큰 장이 마련됐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iol 컴퍼니, 군남의류 제조업체 메텔 인터스트리즈, 네일 재료업체 키스, 수퍼마켓 체인업체 보고파 등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 미국 기업으로는 뉴욕라이프와 통신업체인 블루텔레콤, 편의점·약국 체인업체 듀에인리드 등이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뉴욕시 경찰국(NYPD),

구직자들을 위한 비자 상담을 실시하며, 시민참여센터는 동해 병기 법원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구직자의 경우 온라인(jobworldusa.com)으로 사전 신청하면 입장료 10달러가 면제된다. 문의는 뉴욕중앙일보 718-361-7700(국한 118-131-150) 팩스 718-